

## 방학만 되면 정적이 흐르는 학교

도서관 이용률, 학기중의 20%에 그쳐

방학이 되면 캠퍼스는 정적이 흐른다. 교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미래관 지하 1층 컴퓨터실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편이다. 학기 중에도 컴퓨터실은 강의실 다음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다. 학생들은 시골 좋은 도서관과 열람실을 두고도 컴퓨터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3월부터 8월까지 우리 학교 일반 열람실의 총 이용인원은 8만 7417명으로 한달 평균 1만 7483명이 이용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이용 인원은 7만 3,149명이지만 7월부터 8월까지 이용 인원은 1만 4268명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학기중에 비해 5.1배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학기중에 비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는 총 1만 2011명이 이용했고, 일 평균 261명이 방문했다.

학과와 방학의 이용인원이 많이 차이나는 현상에 대해 정학재(학술정보팀) 팀원은 "방학 중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원은 평일과 주말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학교 근처에 살지 않는 학생들은 시·구립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 같다. 학교에 잠깐 책을 보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



은 없기에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턴십을 하는 학생, 취업준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한 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자료실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총 이용인원이 57만 8491명으로 월평균은 9만 6415명이다. 1학기 중간고사가 있는 4월 이용인원이 17만 5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에는 3만

212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일반 열람실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19만 6242명이 이용했고, 월 평균 3만 2707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6만 7655명으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고, 방학기간인 8월에는 1만 3512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국대 역시 학기와 방학 중 도서관을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 자료실은 7.4배, 열람실은 5.7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재학 중인 정래운(경영 4) 학생은 학생들이 학기 중 도서관을 찾는 이유에 대해 "나는 과제를 위해 도서

관을 방문한다. 도서관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용목적을 말했다.

학과와 방학 때 이용인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는 "집에서 학교가 멀다. 그렇다 보니 학교 도서관보다 집 근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근처 도서관에 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학교를 가지 않는다."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전공관련 서적을 보는 것보

다 학원을 다니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 때문에 교내 도서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정래운 학생은 "일반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방학 중에 학생들의 도서관 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시대를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스펙을 쌓게끔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그는 "방학 교육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진행을 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도서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용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정학재 팀원은 "우리 학교는 강북에 있는 11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어 타 대학 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다. 꼭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이 아니어도 강북에 있는 타대학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책을 대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 2012 취업창업 페스티벌 개최

채용설명회, 모의면접, 창업상담 등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 진행해

오는 11일과 12일 10시에 미래관 DLC에서 취업창업 페스티벌이 열린다. 취업페스티벌에서는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실전모의면접, 기업체 채용설명회, 토크 콘서트, 이미지에 이크업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실전모의면접은 인사담당자와 학생이 1:1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모의면접 장면을 촬영 한 뒤 촬영된 자료를 보여 잘못된 점을 고쳐준다.

기업체 채용설명회에 참가하면 LG전자, NC SOFT, 농심의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토크콘서트는 오전 11시에 두 명의 취업전문가를 초빙해 개최하고, 경품추첨 프로그램은 취업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5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품으로 정규토익응시권을 비롯해 30만원에 달하는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승식(취업·창업지원팀) 과장은 "취업페스티벌은 매년 진행되는 행

사다. 하반기 채용을 대비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고 취업페스티벌의 취지를 밝혔다.

취업페스티벌에서는 창업상담, 창업아이템전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창업동아리 교류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창업아이템전시에는 교내 8개 창업동아리가 참가한다. 창업동아리 교류회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창업동아리 운영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성정은(취업창업지원팀) 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에 잉글리시라운지에서 다과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또한 취업·창업지원팀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창업전문가를 연결해주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보직교원 새로 임면해

지난 달 19일, 한성대의 보직교원 임면에 대한 소식이 교내 인터넷,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일간지에 발표되었다. 김수영(교수지원팀) 팀원은 "보직교원의 임기가 끝나 이번이 새로 임용한 것"이라고 교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보직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보직교원에 대한 임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교무처장 강신일(경제학과) 교수 ▲기획협력처장 이창원(행정학과) 교수 ▲학생지원처장, 체육부장, 성희룡·성복영(전) 및 양성평등상담소장 명광주(사각영상디자인전공) 부교수 ▲총무처장 박준현(역사문화학부) 교수 ▲입학처장 이민석

(컴퓨터공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이병은(영어영문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정승환(경영학부) 교수 ▲예술대학장 김지현(사각영상디자인전공) 교수 ▲공학연구소장, 공학교육개발센터장 정영도(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황해성(역사문화학부) 교수 ▲예술대학원장 한해련(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조세훈(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장 나도성(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조교수 ▲학술정보관장 김창중(한국어문학부) 교수 ▲전자계산소장 정인상(컴퓨터공학과) 교수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2012년 후기졸업생

지난달 17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2년 후기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후기학위수여식은 무더운 날씨와 많은 인파 속에서 시작됐다. 이번 졸업식은 졸업생 및 가족, 총장, 각 대학원장, 학장,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1년에는 456명이 후기졸업을 하였으나 이번 졸업식에는 작년보다 26% 증가한 574명이 졸업하였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박사 7명, ▲석사 136명 ▲학사 400명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31명이 학위를 받았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 졸업식에는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생 31명이 참석했다.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은 교

육기술과학부(이하 교과부)에서 학점은행제를 인정하여 총장명의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중집(학사지원팀) 차장은 "현재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에는 약 천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본교와 평생교육원간의 교류가 원활해졌으면 한다. 평생교육원 학생들도 한성대 동문으로 구성원인 만큼 동아리 및 교내 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문대 대표로 성적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민(역사) 졸업생은 "4년간 다녔던 학교를 떠나는 기분이 좋기보다 졸업하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 현재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추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 유학도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대학생 시절 뭐든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꿈이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대표로 학위를 받은 최희서(공간연출디자인) 졸업생은 "처음 입학했을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었지만, 막상 졸업장을 받고 떠날 때가 되니 아쉽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뭐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식이 끝나고 총장 축사가 이어졌다. 정주택 총장은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영광된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졸업생, 가족, 한성대 교직원분들께 감사하다. 우촌 김의형 박사의 건립이념인 진리와 지성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봉사기능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주택 총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한성대 구성원 모두가 여러분들의 꿈 성취에 늘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학생들과 가족에게 늘 행복과 건강이 따르길 바라며, 다시 한번 졸업

을 축하한다."며 졸업생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3 지면 안내  
민족의 영웅, 독립유공자의 한술

4 반값 등록금 어떻게 풀어야 하니?

5 손끝으로 펼쳐지는 전쟁, 바둑 동아리 '기우회'

6 빛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8 이색카페를 찾아



### 한성대 신문사 37기 수습기자 모집

“ 한 사람의 **세상** 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만큼이다.”

당신의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당신의 세상을 넓히고 싶다면, 신문사로 오세요.

힘든 시간도, 즐거운 시간도 함께 나누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가족을 구합니다.



모집 기간 : 9월 3일부터 9월 21일 까지  
모집 인원 : 00명  
지원 자격 : 재학생 1~2학년  
신문사 혜택 : 수습 2개월 후 활동비 지급, 소정의 원고료 지급, 카메라 및 MAC 교육 개인 책상, 사물함, 컴퓨터 제공, 기자인증서 발급

# 동문회비 어떻게 쓰이나?

## 학교발전 기금, 장학금 지급, 친목도모 활동 등이 주를 이뤄

지난 달 5일, 낙산의 메아리에 동문회비 쓰임에 대한 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윤주승 학생은 동문회 집행과 활동 내역, 동문회 홈페이지 활동에 대해 문의를 했고 동문회비 사용의 무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규하 학생도 "총동문회 홈페이지는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동문회비를 내는 것이 의무인지 의아심이 든다."며 동의했다.

또한 김남호(지식 4)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외중에 학생회비랑 동문회비까지 내야하니 당황스럽다. 하지만 쓰임새를 알게 된다면 동문회비를 기꺼이 낼 의향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익명을 요청한 4학년 A학생은 "등록금 고지서를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어 인터넷을 요청하기 전까지 동문회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내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홍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활동을 원활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지업(총동문회) 회장은 동문회 가

인비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이 학생회비를 내듯이 예비 동문인도 동문인 자격으로서 동문회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등록금 고지서에는 동문회비라고 적혀져 나오지만, 정확한 명칭은 동문회비가 아닌 동문회 가입비다. 학교 측에 동문회 가입비로 기입해달라고 요구해 곧 바뀔 예정이다. 동문회비는 연 2만 원이고, 우리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 걷는 비용"이라며 재학생에게 걷는 비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윤홍(총동문회) 사무총장은 "신입생들에게도 동문회 가입비를 걷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4학년에게만 동문회 가입비를 걷는다. 또한 타 학교의 동문회 가입비는 3~4만 원 선이지만 우리학교 동문회 가입비는 1만 2천원으로 타 학교보다 저렴한 편"이라며 "동문회 가입비를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동문주소득경신, 동문회보 발간, 학교 발전기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재학생 취업지원, 총동문회 모임 장소 마련, 동문회 내 각종 동아리와 소모임 후원, 경조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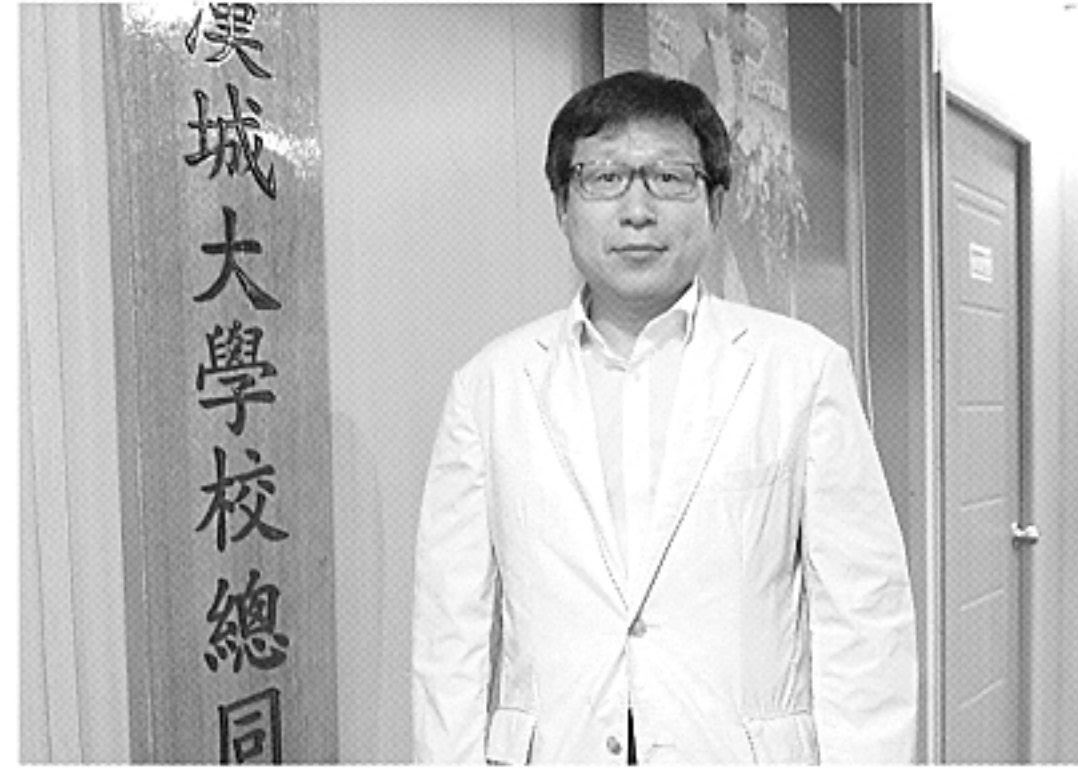
지원, 연례행사 주최 등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와 총동문회간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지업 회장은 "학교 발전기금 목표액을 2억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약 7천 5백만 원을 기부했다. 더욱 노력하여 추후 1억 2천 5백만 원을 더 기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활동이 미미한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대해 한지업 회장은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최근에 개편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예비 동문인이 될 4학년 학생들이 동문회 홈페이지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동문회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면 사무실을 두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없을 뿐 더러 동문회비를 입금하는 사람도 적어 동문회를 원활히 이끌어가기에 힘이 든다."고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총동문회는 학교에 위치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회의나 모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교내 식당을 이용해야



▲ 제기역에 위치한 총동문회 사무실 앞에 서있는 한지업 동문회장의 모습이다.

만 했다. 이에 대해 불만을 느낀 총동문회 회원들을 위해 한지업 회장은 제기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하고 임대료는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총동문회는 홍보국, 장학위원회, 발전기금추진위원회, 감사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끝으로 한지업 회장은 "학생, 동문, 학교당국, 교수와 교직원, 이 네 축이 공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한 곳을

보완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예비 동문인들이 동문이라는 큰 틀에 들어와 총동문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활동인원이 많아지면 총동문회 창회를 크게 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강한 비판은 좋다. 그러나 궁극한 사항이 있다면 총동문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공이희 기자 kong@hansung.ac.kr

### 간추린소식

#### 외국인 유학생 멘토·멘티 모집

오는 6일까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에 참가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이 매주 2회 이상 만나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학교생활 안내, 한국어능력향상, 전공 및 교양학습을 돕는다. 멘토링은 주 2회, 4시간 이상의 만남을 원칙으로 하며 멘토와 멘티가 일대일을 이룬다.

멘토에는 평점 3.0 이상인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재학생,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학생도 지원 가능하며,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멘토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멘토링 보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는 멘토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지우(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5일 오후 2시 우촌관 104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참가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 한성튜터링 튜터·튜티 모집

오는 9일까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한성튜터링에 참가할 튜터와 튜티를 모집한다. 한성튜터링은 특정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과 그 과목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매주 1회 이상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성튜터링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튜터에는 평점 3.5 이상, 해당과목에서 A이상의 학점을 받고, 해당과목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튜터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최상위 그룹(S등급) 튜터와 해당과목 성적이 A+인 튜티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지우(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은 "팀이 해체될 경우 팀원 모두에게 피해가 가므로 한성튜터링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성튜터링에 관심있는 학생은 오는 4일 11시, 미래관 지하 104호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가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교내 글로벌 봉사단 '한울' 단원 모집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서 '한울' 단원을 모집한다. '한울'은 이번에 처음 모집하는 글로벌 봉사단이다. 선발인원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각각 20명이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송이(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연구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봉사단원 선발 시에는 지원자가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과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활동 혜택으로는 '한성 글로벌 봉사단 인증서 지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등이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우촌관 3층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국제교류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6시에 미래관 DL.C에서 국제교류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린다. 국제교류프로그램에는 교환(방문)학생과 1+1(영어+전공) Program, 학기 어학연수와 한성국제어문학교 등이 있다.

김일환(대외협력팀) 과장은 "국제교류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선발하고 있다.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발일정을 알려주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라며 "3개국의 영어권 국가와 4개국의 아시아 국가 지원자를 모집한다. 보통 영어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는 지원하는 인원도 적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지원 자격 요건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어권 국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 면접과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하지만, 아시아권 국가는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공인성적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파견 기간은 최소 4주부터 최대 4학기이다.

### 동정란

김창룡(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에서 『문방 열전-중국편』을 출간하였다. 중국 당나라 한유의 <묘영전>부터 청대 당화정의 <진현전>까지, 문방사우내지 연적을 의인화시킨 명편들에 대해 작품 감상과 함께 평설하였다.

## 레드닷 어워드의 'Best of Best' 한성인



▲ 지난 8월 23일, 28일 이틀에 걸쳐 미래관 DL.C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상담소 주최로 매 학기마다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관련 동영상 시청,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이 있다. 독일의 IF, 미국의 IDEA와 싱가포르의 레드닷 어워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레드닷 어워드에서 김은석·조재환·박삼미(제품디자인전공 4, 신세화(제품디자인전공 3) 학생이 'Best of Best' 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로 이 대회의 목적은 디자인계에서 우수한 양질의 작품에 명예를 수여하는 데 있다. 1955년 이래로 디자이너와 제조업자들은 해마다 열리는 공모전의 우승자를 선택해왔다. 레드닷 어워드의 수상작은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 전시된다.

이번 레드닷 어워드에서 'Best of Best' 상을 수상한 작품의 이름은 'STAFF'이다. 김은석 학생은 수상작품에 대해 "STAFF"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무망치, 쇠파지, 장도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플래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도구가 내장되어 있어, 망치질을 할 때 쉽게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조도구의 양끝에는 자석이 있어 자석으로 못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이 망치질을 할

때 맨 처음에는 고정을 위해 삼삼치고 고정된 후 강하게 친다는 점을 고려해 제작했다. 못을 고정할 때는 못의 아래쪽을 잡아 고정기 잘리고 세계 내려질 때에는 못의 머리 부분을 쳐야 망치질을 잘 할 수 있다."며 "자석의 둥근 부분이 못을 고정하고 힘이 맞는 면적을 크게 하여 망치질이 잘되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공모전 참가 계기에 대해 김은석 학생은 "이번 공모전 참가는 학과에서 권유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학과사람들과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공모전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울 수 없는 성취감과 사람들의 교류와 자랑스러운 행동을 배울 수 있어 좋다."며 "그동안 많은 공모전을 준비해 상도 받고 떨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되어,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공모전 준비를 도와주신 성정은(취업·창업지원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뒤에서 믿고 지켜봐주시는 교수님들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3개월간 매주 회의를 하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Best of Best'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조재환 학생은 "팀 작업 및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Best of Best 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더욱 발전하고, 학교 인지도가 좀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수상자들은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김현성 기자 1033111@hansung.ac.kr



# 뉴스레터 부활



이번 466호 신문부터 한성대 신문사 뉴스레터가 돌아옵니다!  
뉴스레터를 모르는 분을 위한 Q&A

- Q. 뉴스레터는 무엇인가요?  
A. 언제 어디서든 한성대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웹진입니다. 발행된 신문의 주요기사를 담은 웹진을 발행해 신문 기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만들었습니다.
- Q.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뉴스레터는 매 신문이 발행된 후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들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낙산의 메아리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에도 게시글을 올려 링크를 걸어놓을 예정이니 더 편리하겠죠?
- Q.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나요?  
A. 물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제작했기 때문에, 낙산의 메아리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을 통해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응이 좋다면, 해당 페이지를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민족의 영웅! 독립유공자의 한숨

## 아픈 역사는 점점 잊혀 가고, 광복절을 휴일로만 생각해 안타까워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민족의 영웅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들을 기리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던 지난 한 달이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한 그들의 현재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7월, 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은 약 7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130여 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의 수권자는 손자녀까지 인정된다. 독립유공 애국지사 유족회 자료에 의하면 7천여 명의 독립유공자 수권자 중 18%에 해당하는 1천 300여명은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했을 경우 수권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사정권 시절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손자녀를 제외한 자녀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이들이 1천 3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은 이를 계기로 힘을 모아 1995년에 '독립유공 애국지사 유족회'를 창설했다.

이 단체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 단체의 제3대 회장을 맡고 있는 방병건 씨는 독립운동가 방한민 선생의 손자이다. 방한민 선생은 조선일보 창간 일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특종으로 보도하는 등 일제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일본영사관이나 은행 등



을 폭파해 민중봉기를 준비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로 인해 감옥에서 보낸 세월만 17년에 달한다.

방한민 선생은 한국전쟁 1·4후퇴 당시 실종됐다. 그 이후 방한민 선생의 아들인 방준영 씨는 아버지가 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존재를 평생 숨기며 살아왔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인 방준영 씨가 사망한 이듬해인 1990년 방병건 회장은 독립유공자 수권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인 방한민 씨의 독립유공자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로 인해 방병건 회장은 직접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자료를 찾아 나섰다. 그가

독립유공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국가의 도움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운동가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 손자녀 1인까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1973년 유신정부 각료회의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면서 해방일 이후에 죽게 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 방병건 회장은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사망 시기를 정한 악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법은 없으며

없어져야만 하는 법"이라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비난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 운동가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로 뒤덮인 영광 뿐이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기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독립유공자, 그 후손에 대한 예우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독립 유공자들이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그들은 궁핍한 생활고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방병건 회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다. 두 유공자는 차별화된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관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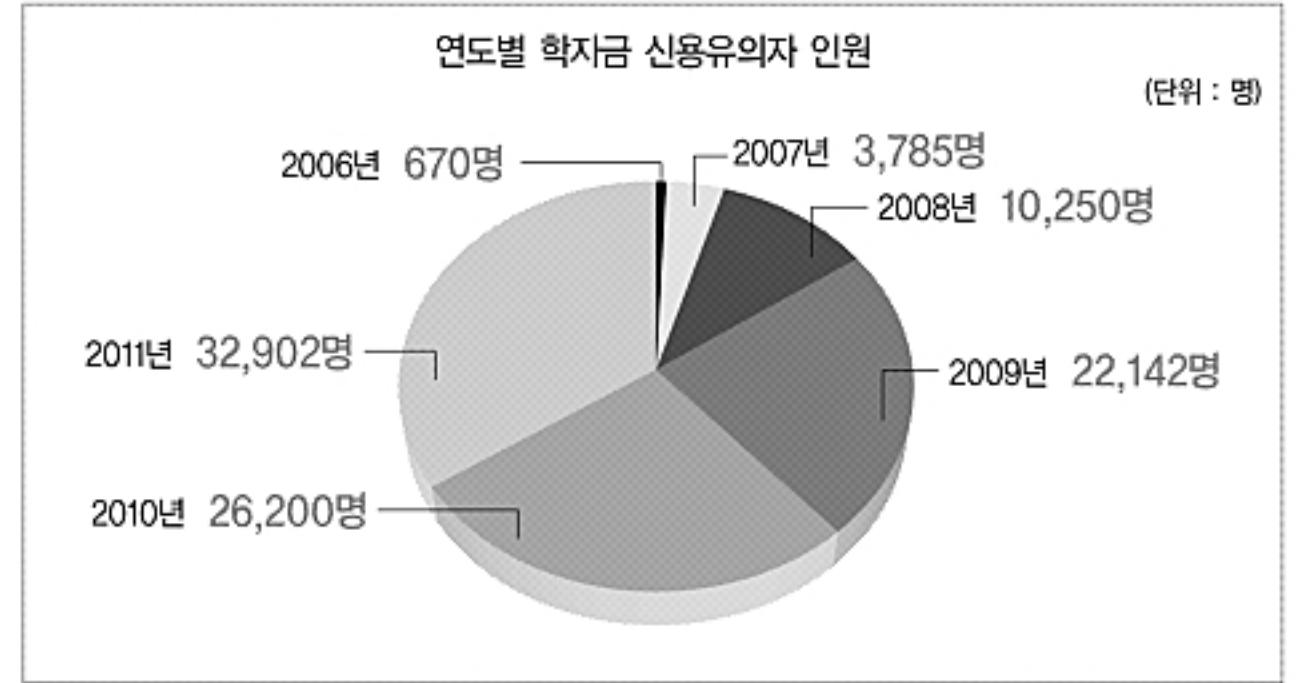
끝으로 방병건 회장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기는 커녕, 광복절을 그저 휴일로만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 "요즘은 태극기조차 게양하지 않아 안타깝다. 나라가 존재하기에 학교나 직장에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국민들의 애국심도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8월 29일은 경속국치일로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선과 병합한 날이다. 경속국치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광복절과 경속국치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태극기 하나라도 거는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학자금 신용유의자, 3만명 넘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가 3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연체 및 신용유의자 수가 지난해 3만 290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2만 6200명보다 6702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전체 학자금 대출 인원은 136만 3751명이며 대출액은 8조 7065억 원이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유의자 수는 2006년 670명, 2007년 3785명, 2008년 1만 250명, 2009년 2만 2142명, 2010년 2만 6200명, 2011년 3만 29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이상 높았으며 대출을 갚는 주체는 본인이 51%, 부모가 상환하는 경우가 49%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군복무 등으로 상환유예기간(이자 납부 의무가 없는 기간)이 있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상환유예기간이 거의 없어 학자금 상환부담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정진후(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교과부가 신용유의자 대책으로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신청자에 한해 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신용유의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학자금대출로 모면하려 했던 것이 신용유의자를 증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연체될 경우, 추후 대출 진행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학자금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한 뒤 가상계좌를 통해 연체금과 연체상환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A씨(여 23)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었다. 신용유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당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독자투고

## 교권 보호,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8일, 교과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또다시 교권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가중처벌을 받는 동시에 특별교육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가해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교육적 지도와 관련한 책무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학교폭력 등 최근 불거지는 학교 문제의 책임을 결국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학생의 가정환경보다는 앞뒤 안 가리는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 실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학생 규제 등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단체의 반응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

도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이것이 너무 편향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문제가 터졌을 때 (피해자로 설정된) 교원이 기밀 곳은 많다. 상담 및 치료 지원, 수업 및 업무 제외, 회담에 따라 타 학교 전보 가능, 심지어 학교에서 교원의 상담역이 되어줄 법률전문가까지 계약적으로 총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로 설정된)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가해자가 받아야 할 온갖 법적 폭력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가해 학생의 '교권 침해 사제'는 학생부를 넘어 교육청에까지 상달될 것이며, 학부모와 학생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나온 대책이지만, 이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경쟁'이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철학은 있는 체 체제가 요구하는 경쟁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마름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 교사 개인이 자기 뜻을 따르 품지 않는 한, 학생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려 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폭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학교의 지상선이라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 개인의 상황, 가정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권 보호 방침은 구태의연한 방침이며, 좀 시끄러운 문제만 터졌다 하면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구세대적 사고방식에서 기원한 방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학교 문제의 핵심은 학교 내부의 경쟁이며, 그것은 곧 전 사회적 경쟁 체제의 축소판인 것이다.

따라서 교원과 학생 사이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 경쟁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하며, 최소한 그 심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 하나만 보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스스로 인생 설계와 진로 계획을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넓게는 '경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대학 평준화 등) 또한 요구된다.

체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교사는 외부 압력 없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갖고 가르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은 경쟁 압력에서 숨통이 트여 보다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먼저 경쟁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관계 회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샘들5기 이휘연(역사 2)

### 낙산만평

이상미(매디 4)



##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 목적
  1. 현대문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 상담 신청
  1. 신청 자격: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2012년 9월 10일(월) ~ 2012년 12월 7일(금)
  3. 상담 영역: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졸업 논문, (사고와 표현) 과제물,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문의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교단에서



문찬 교수 (여니에이선·채독자지인전공)

2012년 여름방학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올림픽경기였다. 이번 런던 올림픽은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다.

우선 하나는 메달수와 종합순위에서 '88서울 올림픽'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점이다. 국가별로 취득한 메달 수가 그 나라의 국경비 지출과 거의 비례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는가 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 또한 인상적인 부분이다. 각 종목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 일하면

### 올림픽경기가 즐거웠던 방학과 개강

서 보여준 자세는 메달 개수 이상으로 훌륭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즐거운 열정으로 물입을 하였다. 과거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운동을 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우선 자신이 좋아서, 즐거워서 선택한 운동의 길이고, 그 이유 때문에 더 큰 집중력과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응원하는 국민들도 메달의 색에 연연하지 않았고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는 "런던 올림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미래의 포부와 자신감을 함축하여 피력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가 갖게 된 성숙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심리학자 최센트미하이씨는 사람이 긍정적 물입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다.

나는 이것을 '즐거움 열정'이라고 해석한다. 즐거운 열정은 강요된 압박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태와는 다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선택한 방향이다. 물론 이 즐거운 열정을 갖기 위한 과정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하는 끈기도 필요하다. 그 대신 자신이 선택한 과정이므로 후회와 아쉬움이 크지 않다는 점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목적인 바를 이룬 사람에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미덕과 함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해서 아름다웠다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넓은 사고력을 갖추면 좋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사회는 건강하다. 몇 년 전부터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해 알게 되

었는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자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세우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열정'을 갖추고 물입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상담을 청하여 고민을 털어 놓는 제자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 "지난 시간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 하는 것 뿐." 사실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매일 되풀이하는 주문이다.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

자, 이제 개강이다. 더위도 가시고 이른 아침에는 가을 기운도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강의와 학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의 열정을 기억하며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된 한 학기가 되어가기를 기대해본다.

· 사 설 ·

### 반값 등록금 어떻게 풀어야 하나?

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도 국가장학금의 확대 등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대학 등록금의 벽은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의 의미가 현재의 등록금을 정밀 반값으로 내려야 실현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 즉 대학 등록금의 의미와 그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무조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만 팽배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사회에서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그다지 쓸모 있는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재원을 교육수월성 제고에 투입하여 왔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대학을 그냥 학위 장사의 하나쯤으로 치부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많은 대학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은 더 많은 재원을 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대학들

이 이제까지 전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의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단 전입금을 충분히 대학에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원을 대학에 제공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기부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많은 대학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자구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가 되는 대학 적립금 문제도 대학이 홀로 설 수 없는 환경에서는 미래의 발전과 재정적 불투명성을 위해 이렇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 자체가 건전해지고 국제적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이 더 많은 설비와 우수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등록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왜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을 갖지 않고, 대학 교육에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가? 물론 현실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은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면 대학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인 것 같다.

기자수첩



공미희 기자 (무역 3)

### 성폭행범죄 언제까지 재발될 것인가

최근 성폭행 전과자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실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그는 집에서 겨우 1km 떨어진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범인인 서 씨를 정기적으로 상담했지만 전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 씨는 자신을 관리하는 모든 자를 눈속임하며, 호시탐탐 범행 기회를 엿본 것이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정보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통보가 된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도 서 씨가 성범죄 전과자인 사실을 몰랐다. 심지어 관할 치안센터에서조차 서 씨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임을 알지 못

했다. 서 씨의 사례는 전자발찌 하나로 범죄 중단을 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성폭행 전과자 관리 및 제도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서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잡히면 이번에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되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교도소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야 하건만, 교도소를 소용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정부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의 성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감시를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

만 이 대책들이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더러 당장 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멀기만 하다.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은 누가 보상해주며 누가 위로해주는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예방활동만이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정도가 낮아 재발률을 높인다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를 강력 범죄로 다루어 높은 형을 매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합의 여부없이 사형을 집행하며 스위스는 성 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한다. 대만과 일본은

신문이나 뉴스에 성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표하고 캐논하는 악물투입으로 성 범죄자의 거세를 진행한다.

성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예방대책이다.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정신적인 생명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감시 및 관리 시스템, 효과적인 심리치료와 같은 교정프로그램 등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그리나

### 이 시대가 원하는 학생들의 능력

"세계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피자는 몇 만개일까?" "우리나라의 전보대는 모두 몇 개나 될까?" "지구 밖 은하계에서 생명체를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

모두 단번에 대답하기 어렵고 황당한 문제들이다. 최근 입사 면접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질문이다. 황당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고, 답을 찾아보지만 정답은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추정논법을 사용해 '페르미 추정'이라고 한다.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며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엔리코 페르미는 물리학 추정에 뛰어난 물리학자였다. '페르미의 추정'은 그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독특한 문제를 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시카고

대학 물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황당한 질문을 자주했다. 그 중 하나가 "시카고에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 있을까?"였다. 단순 암기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문제풀기를 아예 포기했지만 페르미가 강조한 것은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자료 속에서도 생각의 힘만으로 답을 찾아 내는 것이었다. 페르미 추정은 다음과 같다.

시카고에 약 300만 명이 살고 있고 1가구는 평균 3명이기 때문에, 시카고에는 100만 가구가 산다고 볼 수 있다. 피아노 보유율을 10%로 잡으면 10만 가구가 피아노를 갖는다. 1가구당 1대의 피아노를 보유하면 10만 대의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 조율을 1년에 1번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것은 피아노 조율사의 하루 동안

조율 회수이다. 이동시간을 포함해 조율사가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는 데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하루 8시간 일하는 조율사는 하루 4대의 피아노를 조율한다. 조율사가 주 5일 근무하고 1년에 50주 동안 일한다면 4대X5일X50주가 되어 조율사가 1년 동안 조율하는 피아노는 1000대이다.

결국 시카고에는 100명의 피아노 조율사가 있다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 페르미의 추정은 바로 이런 식의 답 찾아내기다.

면접관들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을 추론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한다. 완벽한 답을 구하라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근사치나마 답을 찾아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고, 실제로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유용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귀결점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답을 추론해내고 이것을 대입시켜가며 상황을 돌파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생들은 늘 정확한 답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한들, 그 이전에 상황마다 내려야 하는 결정에서 머뭇거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실패 하는 것이다. 이것이 '페르미의 추정'이 주는 교훈이다.

지금 여러분이 진출 하고자 하는 사회는 단순히 학점이 높고 스펙이 좋은 학생보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을 원하고 있다. 무역학과 3학년 김현섭 학생의 아버지 김동규씨

삼 학 승

### 수강신청 문제, 해결방법 찾아야

매학기, 수강신청 하는 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모든 학생들은 긴장한다. 우리 학교 전공과목의 경우 해당학과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와 달리 교양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부담이 크다. 특히 핵심교양은 수강 가능한 잔여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우리학교의 경우 교양필수와 핵심교양 A, 핵심교양B를 모두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기본소양을 쌓기 위해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수해야 하는 교양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수해야 할 학점은 많은데 비해 수강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문제이다. 이 때문에 낙산의 메아리에는 핵심교양 과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글이 간간히 올라온다.

지난 8월 13일, 4학년 수강신청이 있던 날에는 낙산의 메아리에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이 올라왔다. 그 글은 그 날 낙산의 메아리에 올라온 글 중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다. 다른 학생들도 수강신청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했고, 학교의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선되길 바란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댓글로 표현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에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의 과목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학생들의 불만은 매 학기 터져나올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수강가능 인원을 늘리거나 반반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현섭 편집국장

## 새로운 코너의 기고자를 찾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에그리나'라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에그리나'는 '사랑하는 우리사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말입니다.

'에그리나'는 한성대 재학생의 부모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부모님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이고,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입니다.

신문에 게재되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신문사 페이스북 담벼락 혹은 쪽지, 신문사(02-760-4186)로 연락 주시거나 김현섭 편집국장(010-6440-1424)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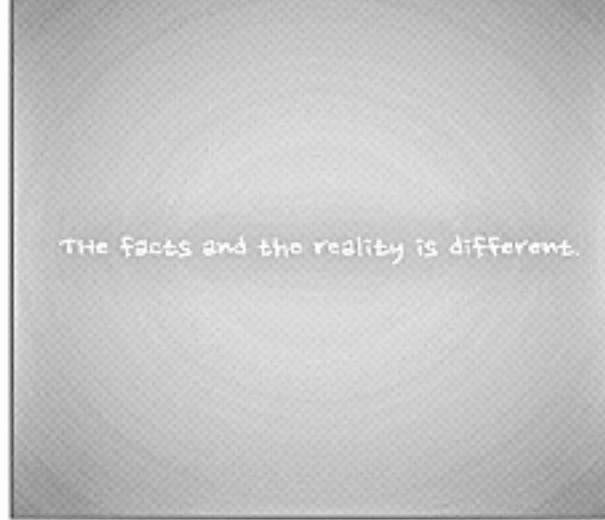
많은 학우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동아리 생활

**<편집자 주>**  
 '내동생'은 각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는 지 엿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 손끝으로 펼쳐지는 전쟁, 바둑 동아리 '기우회'

기계시스템공학과 3학년 송은호 '기우회' 회장을 만나



아마추어대회와 대학생 친목회 위해 개최되는 바둑대회, 이 두 곳이다. 이 두 대회는 약 40~50명 규모의 대회이며 모두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학생 친목 대회에는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속해있는 대학들이 참가하고, 이 대회에 보통 5명의 '기우회' 회원이 출전

한다. '기우회' 회원들은 이 대회에서 최고성적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아마추어 대회는 동아리 회원 중 아마추어 자격을 가진 실력자가 출전하며,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가진 회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송은호 회장은 바둑의 매력을 "정신적인 스포츠"라고 말했다. 이는 바둑이 정신력과 인내심, 집중력을 발휘하는 스포츠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둑은 어른들만 즐기는 고리타분한 스포츠로 느껴진다는 질문에 그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정신수양을 위해 바둑을 많이 배운다. 바둑은 결코 어렵지 않은 스포츠"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은호 회장은 "기우회는 지루한 동아리가 아니다. 바둑 동아리라고 바둑만 두는 것이 아니고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도 자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여 가릴 것 없이 기우회에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끝말을 맺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성북구 소식통

이번 학기부터 '성북구소식통'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 코너는 성북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성북구와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려는 의미에서 생긴 코너이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요청

- 내용 : 결식이웃을 위한 식량나눔창고
- 나눔 참여 가능물품 : 주식류(라면, 쌀, 떡, 빵, 국수 등), 부식류(김, 국, 탕, 햄, 어묵, 통조림 등), 간식류(음료, 과자, 사탕, 과일 등), 식재료(쌀, 콩, 야채, 생선, 고기, 식용유 등), 공산품, 생활용품, 의류 등 유통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물품
- 나눔 참여 계좌 :  
 성북푸드마켓-우리은행 1005-801-394386  
 행복플러스푸드마켓-하나은행 287-910007-59704
- 문의 : 복지정책과 920-1886  
 성북푸드뱅크 980-1377  
 성북푸드마켓 981-1377  
 행복플러스푸드마켓 765-1377

#### 대형매거진 배출 수수료 면제(무상 수거) 안내

-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배출 예약방법 : www.edtd.co.kr 또는 전화접수(구청 청소행정과, 동주민센터)
- 수거방법 : 방문수거
- 수거주기 : 월~토(8:00~20:00)
- 문의 : 청소행정과 920-3875  
 각 동 주민센터

#### 비만탈출의 지름길

- 예약제로 운영(920-2841~2)
- 문의 : 건강정책과 920-1969
- 1. 비만탈출 프로그램
  - 내용 : 체성분 분석, 혈액검사, 심전도, 체력측정, 전문의 상담, 운동지도 및 영양상담
  - 대상 : 20~65세 성인
  - 일정 : 주 1회(총 4회)
- 2. GX 집중관리 프로그램(소규모 1:1 맞춤지도)
  - 일정 : 주 1회(총 6회)
  - 내용 : 아령, 세라밴드, 짐볼 운동, 근력운동, 순환스트레칭 등

#### 민원 24

- 내용 : 언제 어디서나 민원 발급 가능
- 신청 가능 민원 :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5,000여 종, 수수료 무료 및 감면 민원 101종
- 문의 : 민원여권과 920-3142

#### 가로세로

1 ①		2 ⑤	3 ⑨						
									4 ④
2 ②		5 ⑥							
							6 ⑦		
3 ③									
							8 ⑧		
									9 ⑩
4 ④		7 ⑦							
							9 ⑨		

#### 정답자 발표

정 수(무역 3) : 010-xxxx-4393  
 이기광(무역 3) : 010-xxxx-2154

####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 가로

- 1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을 말한다.
- 2 창의력 함양에 있는 교내 부서이다.
- 3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글을 수사하는 방법과 이에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4 이번신문부터 새로 기획된 코너 6편에 있다.
- 5 서울지하철 5호선 중정로역과 광화문역 사이에 있다. 1996년 12월 30일 개업했다.
- 6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 7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로 《동호문답》, 《성학집요》
- 8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 9 펜싱종목 중 하나.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남자들이 하던 결투에서 기원해 전신을 찌르는 것이 가능한 종목이다.
- 10 연필 제도에 의하여 대서함과 구분되는 부속해이다.

#### 세로

- 1 지난 8월 17일 00000000을 가졌다. (1면 기사 참조)
- 2 삼국시대 사철 취급이 지배적이고 참을성 있는 산비둘기 부르는 말한다.
- 3 지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지각의 조성·성질·구조·역사 등을 다룬다.
- 4 4학년 때 등록금과 함께 내는 돈 (2면 기사 참조)
- 5 바닷가와 같은 말이다.
- 6 탁구·배구·테니스 따위에서 공격하는 쪽이 상대 등의 자살을 남겼다.
- 7 금속과 같은 소재의 표면에 보호와 미장을 위해서 도포하는 것이다.
- 8 8면 기사사의 주제이다.
- 9 잘못을 깨닫고 꾸짖음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 한성대신문

이번 한성대신문 이벤트 당첨자는 역사문화학부 1학년 서효진 학생입니다. 당첨된 학생은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02-760-4186)

\*학과·학년 이름을 기입하신 학우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뽑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방글, 혜진 언니, 성희, 미란, 지희 NM패
- \* 방글엄마랑 미란이, 수인이, 지희, 성희, 우리 재래랑 하숙생 제민이~ 우리 계속 이 사이로 지내자! 사랑해♡-역사문화학부 1학년 서효진
- \* 애들아, 알바몬이랑 좀 노라오~
- \* 나도 정구직에 취직을 하고 싶다~
- \* 정희, 준형, 중배, 준현 후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모라 그려요. 졸업하세요! → 아는 후배도 없어요.
- \* 우리 불쌍한 후배~ 흑인노예 파이팅!! 힘내라! 니가 최고 ㅋㅋㅋㅋ

- \* 집에 보내주어
- \* 줄리지는 않다.
- \* 근데 피곤하다.
- \* 라영천 바보
- \* 어! 내가 중문이다!! 페이스북 친구 Go Go!
- \* 사랑하는 MK삼겹♡ 9월 6일, 준희와의 3주년 정월 정월 축하하! 앞으로도 우리 우정 변치말자! 사랑해♡ -나와 가장 비슷한 너에게, 삼겹이끼-
- \* 섭아, 너의 스물 다섯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 덤벼라! 토익

#### 문제

Practice Toic

1. The new computer system designed for the bank ——— accounts to be managed over the Internet.  
 (A) are allowing (B) allow  
 (C) will allow (D) will be going to allow
2. He is particularly ——— by the way his new boss has dealt with emergencies.  
 (A) impressionable (B) impressed  
 (C) impressive (D) impression
3. A comprehensive study of corporate managers ——— most executives do not find their work satisfying.  
 (A) found that (B) which discovered  
 (C) revealing (D) founded
4. ——— we concede that your company does have a point, it is impossible for us to meet your demands.  
 (A) During (B) Having  
 (C) While (D) As
5. ——— people who love their work need time to relax and refresh themselves.  
 (A) Also (B) Although  
 (C) Even (D) Despite

#### 정답

- Q: 한성대신문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A:

####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 정답 응모 방법

새로 개설된 코너이니 만큼, 정답 응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첫번째, 문제를 본다. (반드시 볼펜으로 풀어주세요^^)
- 두번째, 학과·학년·이름·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입한다.
- 세번째, Q&A에 대한 답변을 적는다.
- 네번째, 코너의 크기만큼 신문을 오려낸다.
- 다섯번째, 한성대신문사 임구의 응모함에 넣는다.
- 여섯번째, 다음 신문에서 당첨 결과를 확인한다.

#### 정답자 선발 기준

최고점자 두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자가 많은 경우, Q&A에 대한 답변 정도를 고려해 정답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성껏 적어주시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 정답자

이번 호 정답은 9월 17일 467호 발행되는 신문에 해설과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정답자는 9월 17일자 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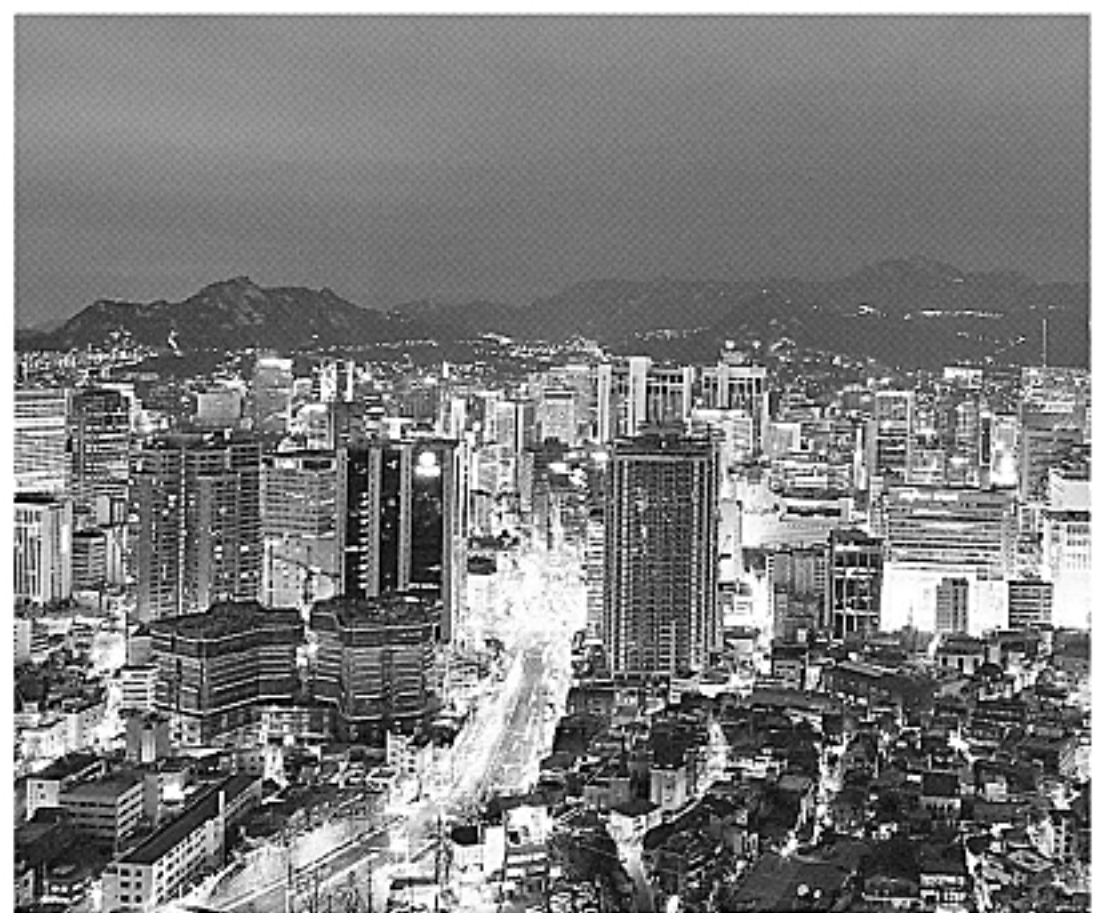
# 빛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 아름다운 불빛이 지구를 파괴해

당신은 언덕에 올라 야경을 보며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요즘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보다 도시의 불빛이 더 잘 보인다. 우리가 보는 불빛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롭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날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이전보다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작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공적인 조명에 의해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광공해'라고 한다. 19세기 이후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생산 활동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태양의 주기에 따라 발생해야 할 밤이 밤낮 구별 없이 계속되면서 광공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광공해 현상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과 강렬한 빛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눈부심 현상, 조명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구역까지 침투해 들어가 피해를 입히는 빛침해 현상, 한 장소에 과도하게 모여 있는 빛을 의미하는 군집된 빛 현상, 필요 이상으로 쓰이는 과도한 빛 현상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공해는 단지 밤하늘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흔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지면 일을 쉬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야간작



업을 하면서 과도한 조명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도시에서는 별자리를 관찰할 수 없게 되었고,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야 사람도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공해는 인간의 생체리듬을 파괴해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인간이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누적인 빛에 의해 혈압이 증가하여 고혈압과 심장병, 발기부전이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어 호르몬 분비 교란을 겪게 된다. 또한 형광등의 과도한 조도로 인해 편두통이나 광공 공포증이 생길 수 있고 어린이들은 학습장애를 겪을 수 있다.

식물들 또한 광공해의 피해를 본다. 식물들은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데 가로등 옆에 있는 식물들은 밤에도 광합성을 하여 밤에 빛을 못 받은 식물들보다 영양분을 과도하게 생산한다. 이로 인해 식물들이 약해지면 농민들 또한 소득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된다. 곤충들도 과도한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교미 확률이 떨어진다. 특히 하천에 사는 성충들은 교미 기간이 길지 못해 교미 확률이 떨어질 경우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개구리와 도롱뇽은 조명을 의해 활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짝짓기를 하는 개체가 감소하게 되고 자연히 번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김정수 부소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등이 도로만 비추도록 하고 있다. 간접 조명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조명을 비추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계의 전기요금의 일부를 납부해주는 대신 해당 점포의 전광판 불빛을 이용해 거리를 밝히는 곳도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가로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광공해를 줄일 수 있다"며 선진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약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을 실현하기 위해 옥외조명 조례를 제정했으며, 유럽에서도 국제조명 위원회를 중심으로 광공해 방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그는 "한국은 아직 광공해에 대한 대처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기 낭비가 무척 심하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수 부소장은 "사람들이 광공해의 개념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 캠페인을 통해 동식물의 피해상황 등 피부와 와 닿을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인식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광공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현성 기자 1033111@hansung.ac.kr

### 食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 넘쳐나는 식생활정보, 믿어? 말아?

지금쯤 정보의 시대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경쟁력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식생활 관련 정보 또한 홍수를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적지 않다. 사실, 주가조작세력의 가격정보에 속아 무지를 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식생활정보는 당신의 건강에 치명타를 날린다.

잘못된 식생활정보의 유통은 흔히 몇 가지 경로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경로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시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렌치파라독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도주를 팔아먹는 프랑스 와인생산업자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 심장질환이 적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로부터 '포도주'가 심장질환을 예방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이끌어냈다. 이 가설은 맥스웰을 통해 몇 단계 정보의 유통과정을 거쳐 '포도주는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고, 마친다. '포도주=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포도주에 이어 복분자, 딸기 등도 몸에 좋은 술이라는 이미지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 그래도 음주에 관

대한 우리사회에서 애주가들에게는 확실한 면죄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사실 포도주가 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미약하다. 오히려 포도주가 여러 가지 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결국 포도주에서 포도의 항산화 작용은 알코올의 발암작용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부어라마셔라 원상'을 외치는 우리 음주문화는 딱 한 잔만 놓고 훌쩍이는 프랑스와 상황이 다르다. 다른 술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소량의 건강기능성 물질이나 항암성분이 추출되었다고 할지라도 술은 술이다. 술에서 알코올성분을 제외하고 마실 수 있다면 플라보노이드 같은 좋은 성분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특정식품의 무차별적 띄워주기인 정보왜곡이다. 넘쳐나는 TV 정보 프로그램들의 식품관련방송은 권위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 \*\*\*은 최고의 식품.' 식품성분 분석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이 분명한 프로그램 구성작가가 정박의 쓰레기통 인터넷을 뒤져 '버섯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대본을 써주면 역시 식품영양학에 문외한인 한의사나 연예인패널,

MC가 버섯은 고단백식품이라고 극찬한다. 졸지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식품이 되기도 한다. 생산자나 전문식당을 찾아간 리포터의 인터뷰를 거치면 '버섯은 최고의 식품'으로 완벽하게 거듭난다.

물론 버섯류의 기능성 성분들이 면역력 증진이나 성인병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어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모두 인강성도 좋은 것은 아니듯 버섯류의 건강증진효과와 필수영양소함량은 크게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버섯류는 그다지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이 아니다. 특히 채소나 해조류와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버섯이 형편없는 식품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니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고, 비타민C가 부족하니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잘못된 식생활정보의 유통에는 프로슈머인 우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혹시,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며 무차별적인 퍼나르기를 즐기는 누리꾼들이 '카더라통신'의 나팔수가 되어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지도 모른다. 정보의 홍수를 현명하게 해석 나가려면 육식을 가리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탁 원장)

### 경제 모니터링

## 저성장과 가계부채

유럽 등 전세계가 벌써 3년 넘게 국가부채 얘기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가부채 수치가 출렁임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한국 언론만 국가부채 걱정을 하지 않고 가계부채만 얘기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해운업,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부채 우려를 이유로 기업 대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기업대출을 축소하도록 했다. 기업대출을 줄이면서 남아돌게 된 자금을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로 돌리게 되었다. 2010년이 되자 정부가 이전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면서 은행들에게 축소를 강요했다. 이에 은행들이 LTV 규제(부동산대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상가대출을 늘렸다. 2012년에 들어서는 상가대출이 위험하다며 상가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언론은 정부의 주장만을 비판 없이 보도한 셈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

지다. 첫째, 이명박 정권이 야기한 저성장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매우 저조하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는 2010년 하반기부터 더 심해졌다. 2010년 3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총 8개 분기 가운데 7개 분기가 4% 이하의 성장률(전기비연율)을 기록했다. 심지어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연속 5개 분기가 4% 이하였다. 집권 초부터 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펼친 결과 물가불안을 야기해 민생과 실물경제를 악화시켰고, 자본유출로 금융부문에 피해를 입었다. 4대강 등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공무원 증가도 저성장에 기여했다. 한마디로 저성장이 가계소득을 악화시켰고 부채부담 능력을 감소시켰다.

둘째,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료들의 민간부채 전반에 대한 강제적이고 단세포적인 축소 자체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침체로 몰아갔다. 금융시장은 경제의 순환적

(혈관, 혈액 등)다. 세포가 일을 하려면 혈관을 통해 운반된 산소와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기업이 생산을 하고 가계가 소비를 하려면 금융시장에서 공급된 자금이 필요하다. 지나친 민간부채 억제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부족을 야기해 장기침체를 일으켰다. 참 여정부 초기에도 가계부채를 강제적으로 축소시켰으며 결국 2003년 이래로 경기가 부진해져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권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독재 정권 시절 관료들은 소수 기업에게만 대출을 허락했다. 게다가 지금의 대부분을 통화팽창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20%에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 동안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았던 까닭이다. 가계와 중소기업은 눈엣가시가 될 수 없었다. 물가난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중소기업인과 가계는 살인적인 금리로 사채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앞선 데 달린 격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융시장을 개혁하고 나서야 비

로소 가계대출의 문이 열렸다. 일부에서 진보를 현학적이고 고상한 데서만 찾으려 드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다. 진보를 착각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장일을 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을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인가? 특권층만이 금융시장을 이용해야 하는가? 시대착오이며 반대이다. 가계부채를 묶는 사슬을 끊어 수백만 가구가 겪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3년 가계부채를 강제로 축소는 정책이 저성장을 야기했으며 지금도 관료들이 이를 답습해 10년 동안 저성장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이강년 책임연구원

### 서평

## 우리네 삶을 담고 있는 이상한 이야기



『채식주의자』/ 한강 지음/ 창비

간만에 공부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었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한, 한강의 풍부한 어휘력과 섬세한 표현들 앞에서 어느새 감동을 듣는 학생 마냥 필기를 하고 사전을 찾아보게 된다. 이번엔 읽었던 채식주의자는 정말 인지 이상한 소설이었다. 흔히 말하는 기분 나쁨, 이렇듯 느껴지는 그 이상함은 아니었다. 사람을 때려치우는 그 어떤 대한민국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부와 언론의 파렴치한 선동과 선전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들 스스로 죄책을 풀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찾아야 할 때다.

주인공인 영혜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처음엔 육식을 거부하던 그녀, 종국엔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기파괴의 의식을 수행한다.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배제한 채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삶,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혜. 정상적인 삶으로 포장된 그녀의 비정상적인 삶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파괴를 하도록 만들었다.

세계에 정상적인 삶이란 것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임이 정상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영혜의 언니처럼, 달려오는 지하철을 향해 뛰어내리고 싶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던져 버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거나 할까.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이 넓은 세상에 오롯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어느 순간이 오면, 모두가 의로움과 삶의 버거움을 느낄 것이다. 결국 영혜는 죽고, 영혜의 형부는 가족도 잃고 있었다. 이 책에서 끝까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혜의 언니 인혜이다. 작가는 인혜를 통해 누구나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어쩌면 작가는 우리와 같은 법인들이 상징하는 인물로 인혜를 내세운 것일지도 모른다.

한성부

# 한성여고 멘토링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와 상호교류지원협약체결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교육실습 및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

- ★ 여학생만 가능
- ★ 신청기간 : 2012. 09. 03 ~ 2012. 09. 07
- ★ 참가 신청방법
  - ① 교육개발연구원에 방문 접수  
우천관 3층 종합행정실 7번 창구, 09:00~17:30
  - ② 신청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hanct1@hansung.ac.kr 신청  
신청시 메일제목은 '한성여고멘토링\_이름'으로 하고 신청서는 파일첨부

위 프로그램 및 설명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개발연구원(02-760-5816)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달나라 토끼들도 해먹던 맛있는 떡

## 사계절처럼 다양한 떡의 종류

예나 지금이나 명절에는 항상 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 설날에는 새해를 기쁘고, 한 살 더 먹기 위해 떡국을 먹었다. 어린 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떡국을 몇 그릇 더 먹었던 기억, 추석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다함께 송편을 빚었던 기억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떡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떡은 명절과 집안의 대소사에 항상 등장하는 음식이다. 떡이 빠지지 않는 행사에는 삼철일과 백일, 돌, 책례, 혼례, 회갑, 제례 등이 있다. 이중 삼철일은 아기가 태어난지 21일째 되는 것을 축하하는 날로 백설기를 해 먹었다.

예부터 조상들은 정월에는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여 차례상에 올렸고, 4월에는 어린 속이므로 만든 속떡과 느티떡으로 석탄일을 축하했다. 11월에는 참떡 넣은 팥죽을 쑤어 액을 막기 위해 먹었다. 조상들은 이렇게 계절마다 떡을 만들어 의례를 치르고 풍류를 즐기며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하게 유지해 왔다.

떡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국시대가 성립되기 이전의 부족국가 시대부터 떡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예로 함경북도 나진 초도 조개더미에서는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바닥에는 구멍이 여러 개 난 삼국시대 이전의 시루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학자들은 우리민족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루떡과 인절미, 절편 등을 즐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떡은 고려 이전까지 부유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고려시대 때 농사법이 발달하고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을 비축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발전했다.

조선시대에는 곡물과 채소류의 재배가 풍부해져 따라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해져 떡의 종류도 많아지고, 맛과 모양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관혼상제의 풍습이 일반화되어 각종 의례와 대·소연회, 무의 등에 떡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전통 떡 조리법으로 알려져 있는 최순자전통 떡 한국개발연구소 원장은 "떡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찌는 떡(시루떡, 설기떡), 찌는 떡(인절미), 빚는 떡(송편), 지지는 떡(전병류)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찌는 떡은 각 절기마다 나오는 산물들을 쌀가루에 섞어 만들어 먹는 것이다. 봄에는 속편과 느티떡, 여름에는 수리취떡, 상추시루떡, 가을에는 사과병, 무떡을 만들어 먹었고, 겨울에는 호박고지떡을 찌 먹었다. 찌는 떡은 도병이라 하는데 시루에 찌낸 찹쌀

이나 떡을 뜨거울 때 찹구나 인반에 쳐서 만드는 것으로 인절미, 절편, 개피떡 등이 대표적이다.

명절 때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송편은 빚는 떡의 한 종류이다. 지지는 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기름에 지지는 떡으로 화전, 주악, 부꾸미 등이 있다.

최순자 원장은 "떡은 부재료에 따라 식감이 달라진다. 무로 떡을 만들 경우 떡의 질긴 맛을 분해해 떡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소

화를 촉진시킨다. 떡은 어떠한 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한도 떡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경기도 여주의 여주산병, 강원도의 감자송편등을 들 수 있다. 경상도에서는 속떡, 충청도에서는 쇠머리떡, 함경도에서는 깻잎떡을 즐겨먹는다.

오랜 세월이 걸쳐 조리법도 떡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 보다는 빵을 많이 먹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순자 원장은 "떡보다는 빵이 구매하는 것도 먹는 것도 간편하고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먹는 것 같다"며 "떡은 쌀가루와 물만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조리 가능하다. 물론 다른 화학첨가물은 들어가지 않는다. 조리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특히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약대용으로 먹을 수 있게 맛을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고 떡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평소에 떡을 즐겨 먹고 있다는 정하연(회사원 23) 씨는 "나는 떡 중에서 찹쌀떡을 좋아한다. 팥과 찹쌀의 조화가 아주 좋아 즐겨먹고 있다. 현대인들이 떡보다 빵을 더 많이 먹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떡집보다 빵집이 더 많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떡의 대중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떡을 자주 먹는다는 박소영(회사원 23) 씨는 "나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가래떡을 가장 좋아한다. 매운 소스와 쫄깃한 가래떡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대인들의 식성이 변하면서 떡보다 빵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다시 떡을 찾으려면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떡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원장은 "요즘은 변화기에 위치한 떡 카페에서 떡을 판매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떡을 즐길 수 있도록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떡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며 떡의 대중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이 명절에만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떡을 찾아줬으면 한다"며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 1%의 어떤것

## 눈으로 즐기는 외발자전거? 몸으로 즐기는 외발자전거!



녹천교 사거리 다리 밑, 그곳의 밤은 어두웠다. 간간히 늘어선 가로등 뒤로 외발자전거를 연습하는 이가 보였다. 그는 다른 아닌 '노원 외발자전거 클럽' 클럽장 김경수 씨.

김경수 씨는 외발자전거 강사이다. 그가 노원 외발자전거 클럽을 만든 건 올해로 3년째, 외발자전거 강의는 무료로 진행한다. 그는 무료강의를 하게 된 이유를 "외발자전거를 처음 접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들을 도와주고 외발자전거를 많은 이와 공유하기 위해 홍보 차 강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씨는 외발자전거를 타고 난 후 체중과 근력이 빠졌다고 한다. 김경수 씨의 직업은 샐러리맨 이었지만 외발자전거를 배운 뒤 외발자전거 강사로 직업을 바꾸었다. 그는 외발자전거가 정신건강에 이롭고,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스포츠라며 "외발자전거는 무엇보다 재밌다. 균형 잡는 운동이다 보니 허리근육을 강

화할 수 있어 척추건강에 좋다. 각 기술마다 사용하는 근육도 달라 신체를 골고루 발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발자전거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가족들이 다 함께 운동해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외발자전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개인차가 있지만 외발자전거를 보통 한 달 정도 배우면 손을 놓고 탈 수 있다. 외발자전거의 가격은 십만 원 선부터 백만 원 선까지 다양하다. 김경수 씨는 "외발자전거를 직접 체험한 후에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낫다. 체험을 하고 나면 자기한테 맞는 외발자전거를 알 수 있어 구매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김경수 씨는 "외발자전거로 극도 종단을 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대학생들도 젊은이의 패기로 극한의 도전을 해보길 바라며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외발자전거를 많이 즐겼으면 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 사진이야기



올해 1학기에 경영학과 애들과 분당 운동공원으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MIS 과제 중 팀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있어서 과감히 조원들의 도전정신 향상을 위해 번지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2학기 다들 힘찬 도약 하시라고 보내봅니다. **이재연 (경영 2)**

## 제5회 한성대 영상제

**개 최 일** 2012. 11. 16(금) 14:00 ~ 17:30

**장 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

**대 상**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작 품 공 모** 10. 1(월) ~ 10. 26(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에 제출)

**출품확정공지** 2012. 11. 7(수) (개별 연락 및 학교 게시판 공지)

**작 품 주 제** 자유공모

**작 품 형 식** 런닝타임 15분 이하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UCC 등

**출 품 포 맏** DVD에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제출 (avi, wmv, mpg 등)

**문 의** 한성대학교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사무실 (02. 760. 4446)

**주 최**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상금 및 부상** 1등 1팀 100만원 / 핸드캠코더, 2등 2팀 50만원 / 디지털 카메라, 3등 2팀 25만원 / 폴라로이드 카메라, 장려상 2팀 usb 외장하드  
\* 행사 참가자 중 행운상 추첨 예정, 부상은 변동 가능

# 자신의 성격을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합정역 근처에 불일을 보러 가던 중 '심리치유카페멘토'를 발견했다. 그곳을 본 순간 호기심이 자극됐다.

보통의 카페를 상상하면 노란색 조명에 훈남은 노트를 두들기고 있으며, 혼내는 책을 읽고 있는 분위기가 생각난다. 심리치유카페멘토를 들었던 순간, 보통 카페의 분위기가 아닌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느껴졌다. 실내엔 나무 몇 그루가 놓여 있고 대문엔 나무그림, 풍경화가 그려져 있는 액자, 카운터 옆에 전시되어있는 과일까지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이란 말이 딱이다.

이 카페의 음료수와 커피의 가격대는 약 4-5천 원 선이며, 브런치는 최저 3천 원 선에서 최고 6천 원 선이다. 성격유형검사는 음료 1잔을 포함해 1인당 만 오천 원이다.

'심리치유카페멘토'의 김화숙 대표는 "나의 심리 해결을 위해 심리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심리 관련 온라인 카페를 4년 동안 운영했다. 이를 계기로 작년 12월에 이 가게를 개업했다."고 소개하기를 밝혔다. 김 대표는 주 고객층이 20-40대이며 커피들이 주

로 찾다고 말했다. 커피가 사사로운 트러블로 자주 싸울 때 이곳을 찾았다면,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고 성격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함께 노력하여 사이가 돈독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커플들 뿐만 아니라 부부들도 이곳을 찾는다. 연애할 때와 결혼을 한 후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손님으로 "성향이 전혀 안 맞았던 커플"을 꼽았다. 김 대표는 "성격유형검사 후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 '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리검사를 받고 몇 주 뒤에 커플이 다시 방문했는데 서로의 안 맞는 부분을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카페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하거나 내면아이치유를 통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 성격유형검사는 총 80문항의 문제를 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해 심리 상담사가 성격을 분석해준다. 내면아이치유는 관계회복과 관련된 근원적 문제를 상

담을 통해 해결해준다. 즉 우울증이나 심리적 상처 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김화숙 대표는 심리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외부에서 해주길 바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을 추천했다. 김 대표는 "겁이 많다, 의심이 많다, 결정을 못한다, 방어가 짝이다, 불안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충실하다, 친절하다, 현명하다, 남을 존중한다, 믿을 수 있다, 용감하다"라는 말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암시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성격 교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심리치유카페 멘토를 방문한 엄지현(25) 씨는 "그동안 몰랐던 내 성격의 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친구의 권유로 같이 오게 되었다.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서로의 성격을 맞춰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회 기자 kong@hansung.ac.kr



## 가는 길

합정역 2번출구에서 도보로 2~3분

주소  
서교동 392-24

영업시간  
Open am 8:00 ~ am 12:00  
(심리검사는 am 11:00 ~)

Tel : 010 - 4071 - 9272



## 홍차와 전시의 만남 'TeaTeaCaCa'



심심하고 나른한 오후, 홍차 한 잔 마시면서 전시품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오후엔 이 카페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운동삼아 쪽 건너 보면 15분 정도 거리에 'TeaTeaCaCa' 카페가 있다. 사람들은 카페에 들었던 순간 화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카페의 특이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바다에 와 있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을 들게한다.

이 곳에서는 홍차 고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고객들이 선호하는 홍차가 있다면 '다만 프레르 다즐링'과 '다만 프레르 아쌈', '파트리지 실론' 등이 있다. 주로 여성들이 찾는 '마리아주 프레르'와 '웨딩 임페리얼', '에스프리 드 노엘'과, 남성들이 주로 찾는다 '아이리시 위스키 크림'도 있다. 당신이 '아이리시 위스키 크림'을 주문한다면, 달콤하면서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홍차에 대해 문화인이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괜한 걱정이다. 밀크티에 들어가는 홍차를 고르기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그냥 밀크티'라는 메뉴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냥 밀크티'에는 '요크셔 골드'와, '아쌈 씨티씨'라는 홍차가 주로 들어간다. 커피는 '드립커피'와 '스페인식 밀크커피' 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곳의 커피는 향이 좋다.

이 카페의 주요 고객은 20-40대의 동대문들이지만 가끔 60대 고객도 이 곳을 찾는다. 또한 한성대와 성균관대의 중간지점에 있어 종종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통 카페에 공부하거나 친구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방문한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TeaTeaCaCa'의 주인 김기린 씨는 "우리 카페에서는 여행관련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연극에 관한 모임도 하고 있다. 연극모임의 경우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초대권을 증정한다. 또한 북

클럽 모임에서는 책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TeaTeaCaCa'의 장점으로 "다양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을 꼽았다.

이 곳에서는 홍차를 마시며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전시는 카페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열린다. 주로 전시는 사진,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보통 전시는 카페 스케줄에 따라 진행 되는데, 따로 입장료를 받지는 않는다.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찾은 정지원(대학생 26) 학생은 "이 카페의 블로그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카페 분위기가 좋다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처음 왔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 마침 비가 오는데 창가를 보며 커피를 마시니 아주 좋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평소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밤에 와서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밤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는 커피와 홍차 뿐 아니라 맥주와 와인, 수제 외풍도 즐길 수 있다. 낮 시간에 탁 트인 전망을 보며 화사한 분위기에 홍차를 즐길 수 있다면, 밤에는 아늑하고 은은한 카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오늘은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와인이나 홍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 가는 길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1111, 2112, 03(마을버스)  
홍대부속중고등학교입구(북서울종합빌딩)하차.

주소  
서울시성북구 선정로 12-6

영업시간 Open 12:00-23:00  
Tel 070-8871-5998

## 복고의 세계로!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

어린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땅따먹기, 공기놀이, 팽이치기를 해봤을 것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아날로그적 성격이 강했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IT시대로 급변했다.

우리가 이용하는 카페만 해도 그렇다. 예전에는 다방의 성격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일도 하기도 하는 등 쓰임새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요즘, 우리의 어린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카페가 있다면 무척이나 반가울 것이다. 4호선 혜화역에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있다.

그 곳은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이다. 카페의 컨셉은 40-50대 중반이 공감할 수 있는 70-80년대 복고 스타일과 현재 대학생의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90년대 복고스타일이 공존한다. 하지만 이 카페의 주요 고객층은 20대 고객으로, 70-80년대 복고를 즐겼던 LP만 세대는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카페는 어린시절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또는 유학을 간 학생들이 외국인 친구와 종종 찾는 곳이기도 하다. 지방에

서 서울로 내려온 사람들도 이곳을 알고 찾아온다. 대학교에서 연극을 보고난 후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의 한정수(34) 반장은 "우리 카페는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와 차별점을 두어 디자인을 했다. 예를 들어 카페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르마블과 교편 교복, 책상 등은 70-80년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손님이 오면 어린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아플로도 먹고, 일기장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일기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며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메뉴로는 반합라면으로 꼽을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은 옛날 다방에서 신중곡을 신청하면 DJ가 노래를 들려주듯 신중곡을 접수하면 노래를 들려준다. 방문객들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시절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찾은 전혜선(쇼핑몰 사장 26) 씨는 "친구와 오랜만에 대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이색카페를 찾던 중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을 알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게임도 하고 커피도 마시니

기분이 좋다."며 "어른들이 입던 교복도 입고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니 이런 교복을 입었던 부모님의 느낌을 받았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사진도 찍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친구와 함께 더 놀고 싶을 때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사진을 찍고, 게임을 하고 놀면 시간은 잘 모를 것이다. 디지털 성향이 강한 지금 '철수가 영희 꼬신 샤랄라 다방'을 찾아 어린시절의 추억을 떠올린다면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 가는 길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와 마로니에 공원 방향 배고파시어터 근처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16 2층

영업시간  
Open 12:00-23:00

Tel 010 - 6636 - 8724

